

정산, 최비의 권여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9월)

2024년 9월 보르네오섬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쿠칭에서 인사드립니다. 동역자님들 잘 지내셨지요? 한국이 많이 더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대지역과 같은 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 어느덧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4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 정산, 최비 선교사의 사역은..

● 화교 교회사역

* 설교사역 - 쿠칭 화교 교회와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와 기초성경공부반, 성경공부인도, 찬양팀 훈련 및 주일 찬양인도, 금요기도회 찬양 및 설교 그리고 중고청년부 지도사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만지심과 변화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화교 Youth 리더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월부터 리더 5명의 자매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이스ien 자매가 중간에 가족이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인해서 제자훈련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페이스ien 자매가 매일말씀 묵상글을 메신저 방에 올려서 제자로써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제자훈련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자매들도 제자훈련이 끝났지만 여전히 메신저 방에 자신이 묵상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제자훈련을 수료한 한 치은자매도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치은 자매는 중고청년부의 소그룹 리더였는데 다른 교회로 감에 따라서 중고청년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치은 자매를 잘 따랐던 자매들이 조금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쪼록 중고청년부 모임이 잘 안정되도록 기도합니다.



정산, 최비의 권여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9월)

● 창원 ***교회 단기선교를 다녀가다

7월 9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창원 ***교회 대학부에서 10명의 대학생들과 인솔목사님이 이곳 쿠칭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의 문화와 날씨 그리고 언어를 몸소 체험할수 있었고 이반어예배, 말레이어예배, 중국어예배, 영어예배 참석을 통해서 이곳의 다양한 예배를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이반족 시골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좀더 구체적인 사역 현장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고 도시의 화교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적인 맛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단기선교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HTK 교회 말레이어 예배 참석

7월 첫째 주부터 쿠칭에 새로운 말레이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말레이어 실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계속 기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새롭게 시작하는 말레이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는 예배만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교회에 말레이어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분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이 말레이어 예배를 통해서 최대한 말레이어에 노출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있는 말레이어의 진보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HTK 교회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 최비선교사 한국어 교실

정산, 최비의 권여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9월)

최비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은 7월 말까지 이어지다가 잠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최비 선교사가 아들 에텐이의 학교 개학에 맞추어서 한국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비 선교사는 지난 주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어를 함께 배우는 친구들이 한국어 학습을 아주 재미있어 하며 지속하길 원해 9월 이후 다시 한국어 교실이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 한국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 화교교회 말레이어 예배부 소그룹에 참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말레이어 공부를 위한 저의 선택입니다. 매달 두번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6월 중순부터 저는 그 소그룹에 참석하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소그룹 리더가 인도하는대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의 요청에 따라서 7월 월부터 소그룹 모임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만남과 모임이 시작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최근 시험기간이니 진학이니 해서 찬양팀 형제 자매들의 참석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분명 연습시간에 참석하겠다고 했으면서 그날 아무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때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주일 예배 당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찬양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에 말에 의하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

정산, 최비의 권여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9월)

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선포하는 말레이어 설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반족 성도들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길 기대합니다.

▷에녹, 에덴은

에녹인 학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진학에 대한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준비해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에녹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에덴이는 방학을 맞이하여 말레이시아로 왔다가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오롯이 맡겨드립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학업을 잘 감당하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역은

*쿠칭 화교교회 성도 18명 한국방문 (10월 30일~11월 5일)

한국에 방문하는 18명 성도들은 두 명의 현지 목사님과 16명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산리 기도원과 기독교 유적지 방문, 어노인팅 목요찬양, 한국의 몇몇 교회 방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많은 재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기도편지를 통해서 “협조 공문 요청서”를 여러 교회에 보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5개의 교회가 서울에서 직접 저희들을 위해 식사로 섬겨 주시기로 했고 현재 몇 곳의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항공료(개인부담), 호텔비, 식사비, 입장료 등등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혹 물질의 후원 뿐 아니라 기도의 후원으로도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산, 최비의 권여섯번째 보르네오 이야기(2024년 9월)

1. 겨울옷이 필요합니다.(가을 및 겨울 긴팔, 긴바지, 패딩, 겨울양말 등등)

열대지역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겨울 옷이 필요합니다. 혹 가능한 교회는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부하나은행 990-014705-224 KPM정산

입금 시 “화교 성도 목적금” 이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청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농협 815132-56-327770 정병수(직접수령)

보내주신 후원금은 말레이시아 성도들을 섬기는데 잘 사용하겠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갑니다

저는 10월 21일 ~ 11월 19일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화교 성도들 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화교성도들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화교 성도들이 말레이시아로 돌아간 후 저는 건강검진 및 개인정비의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두 손 모아 주세요.

1. 쿠칭 화교 교회 사역(설교, Youth모임, 찬양팀, 금요기도회 인도, 한국어교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시골 스부야우 이반족 교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설교와 찬양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전달되게 하소서.
3. 정산, 최비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레이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10월 30 ~ 11월 5일에 있는 화교 교회 성도들의 한국 방문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잘 채워지며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날씨와 안전, 건강을 인도하소서.
5. 에녹과 에덴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카톡 아이디 jungsan91china

한국 핸드폰 번호 010-4386-7531(한국 귀국 시 사용)

070 인터넷 전화 070-4544-6959

말레이시아 쿠칭 전화 국가번호(60) 11-5138-7531

이메일 주소 andrew1976@naver.com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서 정산, 최비